

광주 중앙공원1지구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다

市-사업자, 민원 선제 대응...건설사업 승인 후 이례적 지하주차장 신설 등 3개안 담아...다음달 심의 재실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가 광주시의 제안에 따라 이미 통과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로 하고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빗고을 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1일 광주시에 주차장 신설과 도로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더라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평가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강 시장은 실제 지난 달 산촌동 GS자이, 마륵 위파크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신축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더라도 시민을 위한 교통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빗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9일 선제적인 도심 교통문제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 향상 등을 위한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통문제 등을 재점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로 한 것은 전국 첫 사례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이번이 이번이 제안한 교통문제 해소 안은 크게 지하주차장 신설 등 3개 사업이다. 먼저 지하주차장 신설안은 70면 규모의 우정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안과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정원 아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 앞선 두 방식을 혼용하는 안 등이다. 사업자는 또 서구 영화로 31번길 진출 시 좌회전 전용차로 1개 차로 신설 확보하고, 1블럭 아파트 출입구 진출 시 좌회전 및 출입구 추가차로 확보를 통해 기존 혼잡지 등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서도 광주시에 제출했다. 사업자는 또 앞으로 필요하면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대책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업자 측의 변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빗고을중앙공원개발측은 "광주시에서 아파트 신축 이후 예상될 수 있는 시민 교통 불편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추가적인 공공성 강화안을 요청함에 따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러 이유로 반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공공기여 사업들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 개막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인 'AI TECH+ 2023'이 3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시경관 심의할 경관위원 공모

도시·건축 등 6개 분야 38명...다음달 13일까지

광주시는 "도시 및 건축물 경관을 심의할 경관위원회 위원 38명을 오는 9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경관위원회 위원 임기가 9월 30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 광주시 경관계획 심의, 관내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와 인원은 경관 16명, 도시 6명, 건축 6명, 조경 2명, 디자인 6명, 옥외광고 2명 등 총 6개 분야 38명이다. 응모자격은 모집 분야 관련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3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또는 건축사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학사 이상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 후 연구소, 학회, 협회, 기업체 등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단 경관위원회 1회 연임자나 광주시 산하위원회 중복(3개) 위촉된 자는 위촉에 제한받을 수 있다.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9월13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경관위원회는 도시 미관과 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광주시 도시경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 필요"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지방소멸 위기 극복·균형발전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7000억원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결국 지방의 회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 농업,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서삼석 국회예결위원장과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영국·호주로 한달간 '문화체험 캠프'

전남도, 다음달 20일까지 참가자 80명 선발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를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는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인기 사업으로 지난해 10대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뉴질랜드를 방문한 50명의 학생들은 팜코브 인터미디엇 스쿨(Farm Cove Intermediate School) 타미라 존스 교장으로부터 "학업 열정이 뛰어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연수일정은 지난해보다 더 알차게 구성됐다. 이번 캠프는 연수생의 선호도가 높은 영국과 호주로 4주간 떠난다. 연수생은 영국, 호수에 각 40

명씩 총 80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30명 늘렸으며, 사·군별 1명씩을 우선 배정해 어느 지역도 빠지지 않도록 했다. 연수생 선발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 필기시험 ▲3차 영어면접 등을 통해 80명을 최종 선발하며, 이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한다. 연수비용은 전남도가 80%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영국 등 현지 명문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